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1월

“농업·농촌의 도전 요인 점검, 새로운 희망 모색” 농업전망 2009 발표대회, 1천 5백여 명 참석



‘농업전망 2009’ 발표대회를 1월 21일 「한국 농업·농촌, 도전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1월 21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09’ 발표대회를 「한국 농업·농촌, 도전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전망대회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해 우리 농업·농촌에 다진 도전 요소를 살펴보고 희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년 농가 평균소득 3,166만원 전망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지난해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를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원장은 “정부가 강한 농산업, 든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우리 농업도 사고의 틀을 바꾸어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농정변화와 개혁, 농어업의 역량강화, 농수산식품 수요 창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언급하며 농업부문이 국가 녹색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총 3부로 나눠 개최한 전망대회 제1부는 ‘농업·농촌,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하에 4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채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농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올해 농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도 농업·농가경제전망’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농업소득은 6.7% 증가하나 농외소득이 3.0%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1.2% 증가한 3,166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호 연구위원은 DDA·FTA 협상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2부는 ‘농업·농촌,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란 주제로 진행되어 농식품 수출과 농업부문 조직화 실태와 활성화 방안,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과 R&D 전략, 농업선진국의 성장 동력원 등 1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식품산업, 안전성 분과에서는 식재료 산업 동향과 전망, 유전자변형(GM), 기능성 농식품의 현황과 전망,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계임 연구위원은 “외식업체의 95.7%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47.2%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해 표시의 규격화·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 에너지 분과에서는 농업부문의 친환경 농업, 저탄소 농업확대 등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의 전환과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규격화·표준화 필요

농업경영안정 및 농촌발전분과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은 농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관리를 위한 재해보험, 농가단위 소득안정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어촌기초생활권은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소한 마을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송미령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3부에서는 쌀·곡물, 축산물, 채소, 과일, 과채, 임산물 등의 2009년도 중장기 수급전망을 발표했다. 쌀의 2009 양곡연도 가격은 역계절 진폭이 발생할 수 있어 수출을 촉진하고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수요확충 노력이 요구된다고 김태훈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한육우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4.1~5.8% 감소하고 쇠고기 수입량은 23만톤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산지가격이 약상승세(2.5%)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사과,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각각 3.9%, 8.6% 감소할 전망이라고 김배성 부연구위원은 발표했다.

홈페이지 새단장, 연구정보서비스 대폭 강화 디렉터리 · RSS · 맞춤정보 이메일 서비스 제공



우리 연구원은 2009년 1월 8일 홈페이지(www.krei.re.kr)의 연구정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연구정보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 디렉터리 서비스, RSS(Rich Site Summary)서비스, 맞춤 정보 이메일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또한 주간 농정동향, 농업이슈코너 등을 신설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연구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와 고객 방문 면담조사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발굴, 핵심 요구사항을 뽑아 이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설한 연구자료 디렉터리 서비스는 연구자료를 연구원 발간 체계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주제별, 품목별, 유형별로 묶어서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정보가 있는 모든 게시판에 RSS기능을 추가해 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개인의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 중 하나로 '농업 · 농정동향' 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세부 메뉴로 KREI논단, 주간 농정동향, 농업이슈, 언론보도동향, 농정소식 코너로 나눠 운영한다. 특히, 농업이슈 코너는 최

근 농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키워드로 뽑아, 이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 밖에도 연구자료 추천기능, 주간 인기검색어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고, 메인 디자인도 보기 좋고 활용하기 편리하게 바꿨다.

우리 연구원은 고객과 연구자가 직접 사이버 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연구원 블로그를 2월 2일 오픈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고객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게 된다. 연구원은 블로그를 농업관련 전문분야의 지식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귀농사례집 '인생 2막 땅에서 꽃피우다' 발간



우리 연구원은 '인생 2막, 땅에서 꽃피우다'라는 귀농사례집을 발간했다.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귀농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무 농가의 생생한 사례

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귀농인들의 다양한 체험담이 담겨 있어 귀농을 계획한 분들의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농림수산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에 귀농에 성공한 농업인을 초청, 귀농 상담을 하며 이 책을 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귀농사례집은 정부간행물센터(www.pcbooks.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농협, 중앙회장·조합장 1인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서 밝혀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조합장 1인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협의체인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강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우리 연구원은 1월 6일 aT센터에서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재 부원장은 “개방화 시대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현 중앙회장과 조합장 1인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협의체인 이사회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직선제로 선출되어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권한이 큰 현재의 1인 지배 체제는 정치적 요구에 따라 의사 결정이 크게 좌우되고, 한 사람의 선택이 경영전략 방향을 결정하여 경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 농협의 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

따라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경영성과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 강화, △조합원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농협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전문화하여 비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려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 전남대학교 서종석 교수, 한국농어민신문사 윤주이 대표,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마인드 필요

오 세 익 원 장

드디어 새해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새벽 한강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에서 보았던, 구름 한 점 없는 동녘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그렇게 붉고 찬란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오고 경제도 풀릴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년 그렇게도 어려웠던 우리 농업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 농업을 짓눌렀던 악재는 3高2低, 즉 3高는 국제곡물가, 유가, 환율 등의 급등, 2低는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수요감퇴와 가격하락이었습니다.

올해 농업상황 나아질 것으로 기대

작년 말부터 이러한 악재들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작년 6월 톤당 458달러에서 현재 151달러로 절반 이상 크게 떨어졌고, 국제유가도 최고 147달러에서 40달러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져 현재 1,300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들은 1,100원 이하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도 당분간 호전되기는 어렵겠지만,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파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어 지난해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경기가 침체되어도 수요 감소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다소 위안이 됩니다. 공산품은 돈이 없으면 안 사고 안 쓰면 되지만, 농산물은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농업 상황이 획기적으로 반전되기는 어렵겠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긍정적 사고가 희망을 만듭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업의 새로운 비전,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여 살길을 만들고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정책수요 충족시켜야

이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선제적 정책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지향 연구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즉 필요한 정책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연구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며, 현장 및 현안 정책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나 농업인보다 우리가 앞서가야 합니다.

가급적 현장에 자주 가서 현안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도농가, 농업 관련 직원, 국내외 석학들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통신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연구인력의 정예화·전문화와 연구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연구역량의 제고와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품질과 정책기여도를 중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연구지원체계를 혁신하고,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토론과 소통문화를 정착시키며 상호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절로 신바람이 나고, 각자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

선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연구원을 농정연구의 허브로 키우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대학과 지방 및 중소 연구기관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1~2개 대학 또는 지방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남아 개도국의 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을 지원하여 우리 연구원을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연구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자를 잘 대접하면 성하고 잘못 대접하면 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농식품부, 농업인, 농기업, 학계 등 다양합니다. 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면 보람과 긍지도 느낄 수 없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취임할 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원 활력의 진정한 원천은 인화와 단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고, 연구원에 더 큰 애정과 소속감을 갖게 되고 활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비방보다는 칭찬을 합시다. 비판과 질책은 상처를 주지만 칭찬과 격려는 존경과 신뢰를 낳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경제, 농업, 우리 연구원이 모두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R**



올해 농가당 농업소득 전년 대비 6.8% 증가 전망

박 동 규 선임연구위원

지난 2년 동안 영농여건이 매우 어려웠다. 2007년 10a당 쌀 생산량이 평년작보다 6% 낮은 466kg을 기록하였다. 돼지와 육계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사료가격은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그 결과 2007년 농가당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3.9%나 하락하였다. 2008년 기상여건은 농업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투입재 가격 작년비 6.7% 하락 전망

쌀 단수는 사상 최고 수준인 10a당 520kg을 기록하였다. 쌀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채소와 과채, 과일 등을 폐기해야 할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났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사료와 비료 등 투입재 가격이 급등하여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 2008년 농가당 농업소득도 전년에 이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농업생산액은 품목별로 등락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쌀 단수는 평년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쌀 가격은 작년보다 4~7% 하락할 수 있다. 생산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여 올해 쌀 생산액은 작년보다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올해 채소류 재배면적은 약 5%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채소류 생산액은 작년보다 9%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해결이 현상으로 감귤과 단감 작황이 부진하고 가격이 높았다. 올해에는 반대 현상으로 과실류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생산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축산물 생산액도 2%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우 가격이 2% 정도 상승하지만 작년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던 돼지 가격이 올해에는 공급량이 늘어나 7~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전환 계기 마련해야

농업생산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료와 비료 등 투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영농수지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투입재 가격은 작년에 비해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었던 사료 가격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 가격도 작년에 비해 14%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므로 농가당 농업소득은 작년보다 6.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투입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농업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다양한 노력이 뒤따르면 농업소득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올해 투입재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지만 2007년에 비교하면 여전히 11.5%나 높은 수준이므로, 농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농가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비를 절감한다면 소득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비료 사용량도 권장량 수준으로 조절하여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올해 농업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쌀가격 하락 요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작년의 쌀 풍년 영향으로 올해 어느 정도의 쌀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쌀 관세화에 조치 유치가 유지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쌀 물량이 매년 많아지고, 이는 쌀가격 추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관세

화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저율관세할당(TRQ) 이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이 많아 쌀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가격이 톤당 500달러 내외에서 상승하여 현재는 1,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중립종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연간 100만 톤을 수출하던 이집트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수출 금지조치가 해제되어도 전체적인 공급량 감소로 국제 쌀가격은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UR협상 기준에 의한 국내의 가격차이를 반영한 관세상당치와 최근의 높은 환율을 고려하면 쌀에 대해 관세화를 하여도 TRQ 이외의 쌀수입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출로 내수시장 한계 극복해야

한편 쌀 등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국외로 확대하여 농가 수취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외 가격 격차로 인해 쌀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497톤과 833톤이 수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올해 과채류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많아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경험이 없는 수박, 오이, 호박, 풋고추 농가의 수출의 향이 32~53%로 조사되었다. 수출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생산비 절감, 수입 감소 및 수출 확대의 다양한 노력이 뒤따르면 올해 농가당 농업소득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R**

2009년 다양한 국가와 FTA 추진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모두 53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10년간 16개국과 FTA를 타결하였고, 37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된 16개국 가운데 ASEAN 10개국 및 미국은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도 높다. 나머지 5개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과 칠레이다.

EU, 캐나다, 인도 등과 FTA 타결 예상

미국을 제외한 15개 국가와의 FTA는 이미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타결된 미국과의 FTA는 다른 15개 국가와의 FTA에 비해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도 크고 상대국의 농업 경쟁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국내 보완대책 및 비준 문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37개국 가운데에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걸프협력회의의 6개국(GCC)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33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다. EU와의 상품양허 협상은 주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의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시간이 걸렸으나 2009년 1월에 개최된 통상장관 회담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에서 타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인도와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된 상태로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협상도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멕시코와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협상

이 올해 안에 종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체결 또는 타결한 국가는 50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캐나다, EU

미국과의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 가운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생산액 감소는 협상 이행 5년차에 4,465억 원에서 시작하여 15년차에는 1조 361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융자 계획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연간 5천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19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EU와의 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 주류, 낙농품 등 수입액이 많은 품목을 비롯하여 전분 및 식물성유지 등이다. 캐나다로부터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주요 품목은 육류와 보리이다. EU 및 캐나다와의 FTA로 예상되는 피해의 80% 이상이 축산업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돈 및 낙농업에 대한 막바지 협상전략과 국내 대책이 요구된다.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국가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터키,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러시아, 중국 등 10개국이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터키 4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9년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와의 1차 협상은 서울에서 3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2009년 상반기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남미공동시장 4개국과는 공동연구, 공청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로 협상 개시

여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국과의 FTA를 위한 공동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협상 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FTA 협상도 단기간 내에 시작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호주, 뉴질랜드, 남미 등 농업 강국 주시

농업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다. 페루, 터키, 콜롬비아는 농산물 교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호주와의 FTA에서는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외에 감자, 오렌지 등 일부 곡물과 원예작물의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낙농품과 쇠고기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며, 키위, 사과, 체리 등 과일의 수출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의 FTA는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민감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양허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구제조치 등의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농품 등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모든 FTA가 타결되면 이들 국가와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85%, 수입 비중은 95%에 이를 전망이다. 언급한 국가 이외의 국가와 FTA를 추진한다면 석유 등 자원 확보의 중요성과 잠재적 수출시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모로코, 파키스탄 등이다. **R**

일본, 지역농협의 농업경영사례 확대

김태곤 연구위원

건실한 농업경영이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이것이 한 국가의 농업의 장래를 결정한다. 일본 농업은 가족경영 중심의 농업구조이다. 가족경영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법인화하는 등 기업적 경영으로 발전하는 소수 계층과 규모를 축소하여 자급자족적 농업이나 취미 농업으로 후퇴하는 다수 계층으로 분화한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경제논리로 존립이 불가능하여 작업위탁이나 임대 등을 통하여 규모축소의 길을 걷는다. 경작을 포기하면 농업경영의 소멸과 지역농업 쇠퇴로 이어진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가족경영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농협이 가족경영을 보완·대체

농작업 수탁조직의 활성화, 일정지역을 단위로 한 경영의 조직화,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그리고 지역농협의 농업경영 사례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지역농협이 농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농협은 농업경영,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 농작업 수탁, 영농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농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 농협은 조합원과 지역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지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농가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를 비롯하여,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농지이용조정, 농업조직 육성, 작목반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에는 후계자 확보와 육성, 친환경농업 추진, 농산물의 안전성 지도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영농지도원'이며, 2005년 현재 전국에 1만 4,385명에 달하며, 지역농협당 지도원 수는 1990년 5.3명에서 2005년 16.2명으로 늘었다고 있다.

쌀 생산조정 업무가 정부에서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논농업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종전의 쌀 생산조정이 단순한 '쌀의 감산'에서 논농업의 '전략품목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 정부는 예산확보, 농협은 지역에서 산지육성 전략수립과 실현이라는 농업진흥의 엔진이 되고 있다.

미야자키현(宮崎縣) 미야코노조시(都城市) 미야코노조 농협은 자회사 '에그리센터 미야코노조(ACM)'를 설립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 경과를 보면 농협은 1970년대 초 '농업기계은행사업'을 통하여 관내 농작업 수위탁의 중개·알선을 시작으로, 농작업 수탁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거쳐, 지역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합원에 대한 영농지원을 하는 등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직접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ACM은 2001년 지역농협 출자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농업경영과 농작업 수탁사업이 주요 사업이며, 2007년 현재 쌀·감자·고구마·대두·우엉 등을 합하여 38ha와 차 150ha를 경영하고, 연면적 2,865ha의 작업수탁, 그리고 수도 옥묘·건조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식직원 64명, 1년 계약의 임시직원 35명에 수시로 활용하는 등록직원 90명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농업 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인근 지역에 '농사조합법인 유메팜 타로보우'가 있다. 2004년 관내 182명의 농가와 지역농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마을 단위 영농조합이다. 150ha의 농지 중에서, 쌀 생산은 개별 농가들이 담당하고, 3년에 1회씩 집단운작을 실시하는 쌀 생산조정 농지를 대상으로 대두(27ha), 감자(21ha), 사료용 옥수수(29ha), 고구마(8ha)를 재배하고 있다. 이 밖에 216ha의 작업수탁과 퇴비생산(연간 512톤)도 겸하고 있다. 대두, 감자, 옥수수는 전작업 기계화를 실현하고 있다.

농협의 경영 사례는 미야자키현에서만 2008년 말 현재 10개 법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야만 흑자경영인 것이 불안요소이다. 농협에 의한 농업자원 보전이나 지역농업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은 인정되고 있어 사업확대가 기대된다.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와의 경합 회피가 과제

제도적으로는 농협이 직접 농업경영에 참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하여 농협 스스로 농협의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농협의 농업경영은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농업 유지 등의 효과는 인정되고 있지만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 또한 농협은 조합원인 농가와의 경합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농협의 농업경영에 거는 기대는 크다.

또 농협의 '농업기계은행사업'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농협이 농작업 수위탁을 조직적으로 중개·알선하여 기계 이용과 농작업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후 최근 수탁작업 알선, 농기계 이용조정, 수탁조직 육성 등에 의해 후계자를 확보하고 지역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탁조직과의 경합 회피를 전제로 기계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작업의 단지화를 통한 작업요금의 절감이 필수적이다. 일본 농협의 사례는 우리나라 농기계임대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다. 

1월 주요 농정 동향

2009년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및 관련 사항을 발표하였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뉴타운 조성 사업,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등 최근 중점 추진 시책 및 주요 이슈들이 이에 해당한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은 규모화된 농수산물 판매전문회사 설립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조직화,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주식회사 또는 농업회사법인 형태를 갖추고, 생산자 및 시·군이 총자본금의 1/4 이상씩 출자하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고흥, 화순, 완도, 보은, 의령, 합천 등 6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도시 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여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2009~2011년 5개 지역, 7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은 간척지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지원이 목적이다. 2009년 추진 사업 중 '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간척지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규모화된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8년 12월부터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을 의무화하고 사육단계부터 이력추적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도축, 식육포장, 판매 등에는 이력추적제가 2009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력추적 관리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국가산 소의 특위험물질(SRM)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 및 검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 허용,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지원 등도 내용이 변경되었다.

농협개혁위원회, 농협개혁안 발표

농협개혁위원회는 1월 9일 농업협동조합 개혁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혁안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지역농협 개혁, 경제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주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1월 7일 농협중앙회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주요 제안은 현행 35명인 이사 수의 축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대의원회 선출을 통한 선임, 외부전문가 영입 확대 등이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

환하고 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상임감사제 도입과 광역 시·도 본부 통합, 유사기능 자회사 통폐합 추진도 제안에 포함되었다.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한 안도 이사 수 축소,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간선제 및 4년 단임제 검토, 자회사·손자회사 통폐합 등을 제시하였다.

일선 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선택권 부여를 통합 조합원의 선택 범위 확대, 광역합병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조합장의 단계적 비상임화와 상임이사 자격 강화 등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 안에서는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검토와 자율합병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등도 검토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그동안 사업 중 비중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7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중 경제사업이익 비중은 각각 12.8%, 40.1%였다. 또한 출자자가 조합으로 제한되어 자본금 확충에 한계가 있고, 출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조합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농협개혁위원회는 조합합병 및 경제사업 활성화 집중 지원, 전국단위 품목조합 공동사업법인 육성,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소비자 농산물판매장 건립 시 참여 의무화 등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강화 등의 개혁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방안과 축종별 핵심농가 육성, 공동계산 실천조직 육성, 직거래 유통망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겨울가뭄 피해 심각

2008년 가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용수 부족 지역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강수량은 평년 78.1% 수준에 그치고, 전국 다목적댐들의 저수량도 52.4천㎞³으로 예년의 4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9년 1월 8일 현재 한반도 급수 또는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이 167개에 이르고, 해당 지역 주민 수는 7만 명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생활용수 부족 피해는 상수도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농촌 지역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뭄은 최장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파종기 피해와 양파 등 월동작물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관련 법·제도는 일부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 각종 농업재해에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사전적 예방 성격이 부족하고, 보상 및 지원 수준도 미흡하다. 「농작물재해보험법」도 과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가뭄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풍수해보험법」은 대상물을 주택 및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로 한정하여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

(정리: 동향분석실)

“향후 DDA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

‘DDA 농업협상 전망 및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DDA 농업협상 전망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5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DDA 농업협상 전망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세익 원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가 향후 DDA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활발한 토론의 자리가 되길 부탁했다. 유병린 통상정책관은 DDA 협상이 각국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으면 세부 원칙 타결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잔여쟁점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길 당부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가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주요내용 및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DDA 협상은 일부 쟁점이 남아있으나 거의 중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전체세번의 12%를 특별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체세번의 5%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국내 중요 품목을 특별 품목과 민감 품목으로 선정할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시장 접근 분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우리 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은 ‘DDA 농업협상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협상 타결 이후를 위한 대책으로 협상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DDA 협상을 근거로 품목분류를 위한 지표로서 생산감소액, 산업의 성장여부, 산업 보호 정도, FTA 효과 등을 반영한 지표를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다만, 품목간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품목별 단체와 중

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며 품목별로 개방화 정도를 감안해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는 ‘DDA 개도국지위 유지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개

도국 지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을 분류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응전략도 명분보다 실리를 찾는 치밀한 단계별 대내외 전략을 마련하기를 주문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은 GS&J 이정환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농림수산식품부 김종진 국제농업국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진범 사무총장,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 농협중앙회 최찬호 대외협력국장,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발상을 전환하고 창조적 마인드로 긍정·적극적으로 일해야”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기축년 힘찬 출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오세익 원장은 1월 2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마인드를 갖고 매사에 긍정·적극적으로 일해 주길’ 당부했다.

오 원장은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 농업의 살길을 만들고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확대하며, 정예화·전문화와 연구역량 제고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지원체계를 혁신하고,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우리 연구원을 농정연구의 허브로 키우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무식을 마치고 악수례를 하며 힘찬 출발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회의실에서 종무식

을 가졌다. 종무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우리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강학원 관리운영실장의 정년퇴임식과 우수 직원들의 표창 수여식도 있었다.

우수직원으로 국승

용, 신용광 부연구위원, 김정섭, 이명기, 황승재 전문연구원, 주홍진 책임연구원, 박지윤 연구조원, 남숙경, 박혜진 위촉연구조원, 윤옥 행정연구조원이 원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권태진 선임연구위원과 김영훈 연구위원이 ‘KREI 북한농업동향’ 발간 1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세계농업’ 100호 발간 공로로 김태곤 연구위원이 공로패를 받았다.

농정 유공자로 송주호 연구위원이 대통령 표창, 신완식 전문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표창은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송미령, 황의식 연구위원, 김경필, 김용렬 부연구위원, 최영은 전문연구원, 유영찬 2급관리원, 김현중 연구원, 이선호 3급 관리원, 김태근, 이인아 3급 전문원, 임노규 위촉전문원, 문영미 연구조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은 전일송 1급관리원이 받았다.